



독감약

요약

독감약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이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감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의 일종이다. 독감 뿐 아니라 신종플루 등에도 사용하며 치료와 더불어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도 있다. 복용하는 경구제와 주사제, 흡입제 형태의 제형이 있다.

외국어 표기

influenza treatment drug(영어)

동의어: 인플루엔자 치료제, 독감치료제, 인플루엔자 약

유의어·관련어: 신종플루 약, 계절유행 독감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인플루엔자(influenza)' 라고도 한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나뉘는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A형과 B형이며, B형은 증상이 약하고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A형의 경우 변이가 잘 일어나 대유행 가능성이 많다. 2009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신종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H1N1)의 감염이 대유행(pandemic)하였는데 이를 '신종플루'라 일컫는다. 독감의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는 고열과 함께 오한, 두통, 몸살, 심한 전신근육통의 특징과 기침과 콧물 등의 상기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의 기침이나 재

채기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방출되어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원인 바이러스가 분명하므로 예방백신이 있으며 치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한편 감기는 코와 목 등 상기도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말하는데 리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 감기는 콧물이나 코막힘, 두통,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열이나 오한, 드물게는 결막염이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원인 바이러스 종류가 다양해서 예방백신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증상도 약한 편이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실시한다.

약리작용

독감약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의 증식을 방해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의 일종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리 대사를 할 수 없어 다른 생명체의 세포를 숙주로 기생하여 숙주세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해 증식한다. 독감약인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피막(外皮膜)에 존재하는 당단백질인 뉴라미니다아제(neuraminidase, NA)*의 작용을 차단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부착하고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여 바이러스 생산을 차단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2일 이내에 증식 속도가 정점에 이르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자 외부에 위치한 거대한 당단백질이다.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복제를 마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자를 세포로부터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종류

독감약으로 사용되는 각 약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셀타미비르

생후 2주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한다. 캡슐제와 건조시럽제 형태의 제형이 있으며 치료요법으로는 1일 2회 5일간 투여하며, 예방요법으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한다.

자나미비르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감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호흡기계인 디스크할러*를 사용하여 경구로(입으로) 흡입한다. 치료요법으로는 1일 2회 매회 2번씩 흡입하여 5일간 투여하고, 예방요법으로는 1일 1회 매회 2번씩 흡입하여 10일간 투여한다.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 중인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사용한다.

페라미비르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감염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주사제 형태로 점적주사†하며 15분 이상 점적하고 단 한 번 정맥주사한다. 조제 후에 즉시 투여해야 하며, 경구제나 흡입제 등 다른 독감약의 사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약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발록사비르

만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감염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 번만 경구로 투여하며 체중에 따라 용량을 정한다. 40~80 kg인 경우 40 mg 1회, 80 kg 이상인 경우 80 mg 1회 투여하며, 철, 아연,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을 함유한 경구 보조제 등과 함께 복용 시 발록사비르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1. 독감약의 종류

제형	성분	제품 예
경구제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
	발록사비르	조플루자®
흡입제	자나미비르	리렌자로타디스크®
주사제	페라미비르	페라미플루®

* 디스크할러(diskhaler): 일정량의 분말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한 제제. 자나미비르의 경우 가루약이 담긴 알루미늄 포낭에 구멍을 뚫어 흡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를 말한다.

† 점적주사: 장시간에 걸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정맥으로 들어가도록 주사하는 방법

효능·효과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 또는 예방한다.

부작용

오심, 구토, 두통, 설사, 백혈구 감소, 불안, 섬망, 이상행동,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 중증 세균감염이 인플루엔자와 함께 존재하거나 또는 인플루엔자가 진행되는 동안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독감약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
- 예방의 목적으로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를 사용하는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대신하여 투여할 수 없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효과는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 독감 치료제의 사용이 독감의 전염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는 개인의 위생은 물론 전염의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나미비르 흡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지만 기관지 경련이나 호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속효성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 독감약의 경우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투여 후에 발작, 섬망, 환각 등의 이상행동을 포함한 정신신경증세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발열 후 2일 이내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이러스 치료제 복용과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보고되었으므로 적어도 2일간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에 대해 가족들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속효성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시에 제일 먼저 선택되는 약제이며 운동 전 운동으로 유발되는 천식의 예방에 사용한다. 증상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자주 사용하게 되면 천식의 악화를 의미하므로 현재 치료의 재평가가 필요하다.